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numbers

vol. 341 | 2026.7.7.

대한민국은 카페인 공화국
한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416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1위!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결혼생활 만족도
2. 한국인의 장례 인식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416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1위!

대한민국 골목상권에서 '커피 전문점(10.6만 개)'은 이제 편의점보다 2배가량 많아 흔한 일상 풍경이 되었다. 한국 성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무려 416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57잔)을 7배 이상 웃도는 독보적인 1위이자, 명실상부한 '카페인 공화국'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 거대한 카페인 열풍은 이제 교실 안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고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6개월 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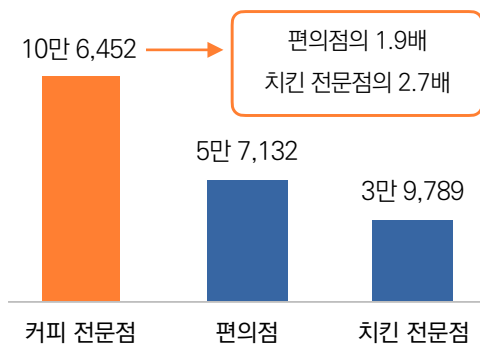
이번 <넘버즈 341호>에서는 아침을 깨우는 성인의 힐링 루틴부터 밤을 버티는 청소년의 학업 도구까지, 대한민국 일상을 지탱하는 카페인 의존의 명암을 통계로 짚어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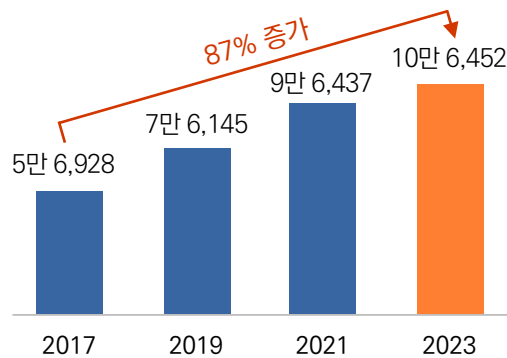
‘커피 전문점’ 10만 개 돌파, 지난 6년 사이 87% 증가

- 대한민국 골목상권에서 커피 전문점이 차지하는 위상은 독보적이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커피 전문점’ 사업체 수는 10만 6,452개로 집계되며 10만 개를 넘어섰다. 6년 전인 2017년(5만 6,928개)과 비교하면 87%나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5만 7,132개)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1.9배) 수치이며, 국민 야식으로 꼽히는 치킨 전문점(3만 9,789개)보다는 2.7배나 많은 압도적인 규모다.

[그림] 주요 업종별 사업체 수 비교 (2023, 개)



[그림] 커피 전문점 갯수 추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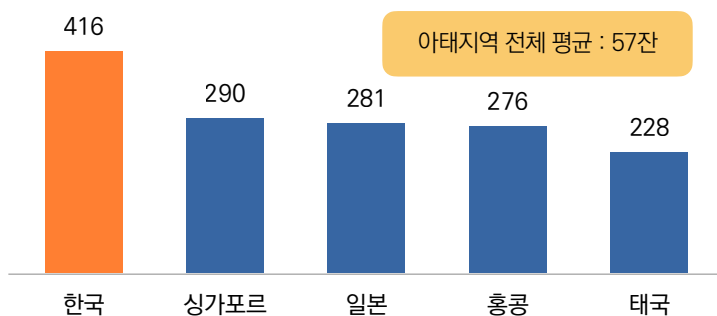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KOSIS),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2026.0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1&conn_path=I3)

한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416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1위!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성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16잔(일 평균 1.14잔)으로 집계되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주요국(21개국) 가운데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 이는 조사 대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57잔)보다 무려 7.3배나 많은 수치다. 아태지역 내에서 커피 소비가 활발한 편인 싱가포르(290잔), 일본(281잔), 홍콩(276잔) 등과 비교해도 한국이 연 100잔 이상 압도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아시아태평양 지역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2024,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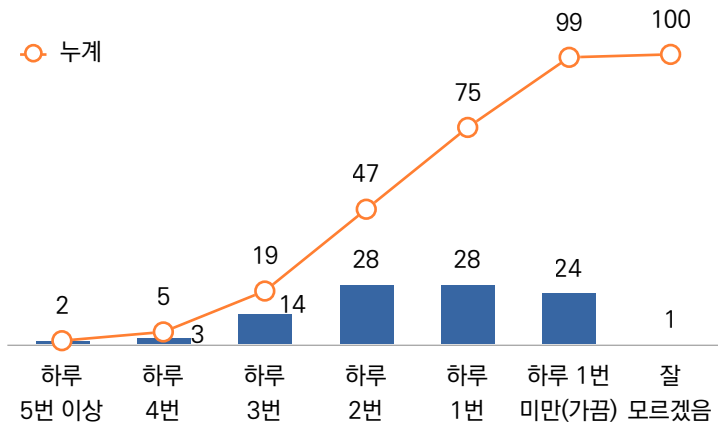
※출처 : 동아일보, 1인당 커피 416잔 소비... 카페가 치킨집-편의점보다 많아, 2025.03.0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228/131126969/2>)

※원출처 : 유로모니터 인터넷서널

50대 이상 10명 중 3명, 하루 3잔 이상 마신다!

- 우리나라 커피 음용자의 하루 평균 음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 1번 미만'(가끔)으로 마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으며, 이를 제외한 전체 응답자 4명 중 3명(75%)이 하루 1번 이상 커피를 소비하고 있었다.
- 구체적으로는 '하루 1번'과 '하루 2번' 마신다는 응답이 각각 28%로 가장 높았고, '하루 3번 이상' 마시는 고빈도 소비층도 19%에 달했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는 비율이 전체 평균(19%)을 크게 웃돌아,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상 속 카페인 섭취 빈도가 더 잦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하루 평균 커피 음용 횟수 (2025, 일반 국민, N=1,200, %)



[표] 연령별 '하루 3번 이상' 마시는 비율 (2025, 일반 국민, N=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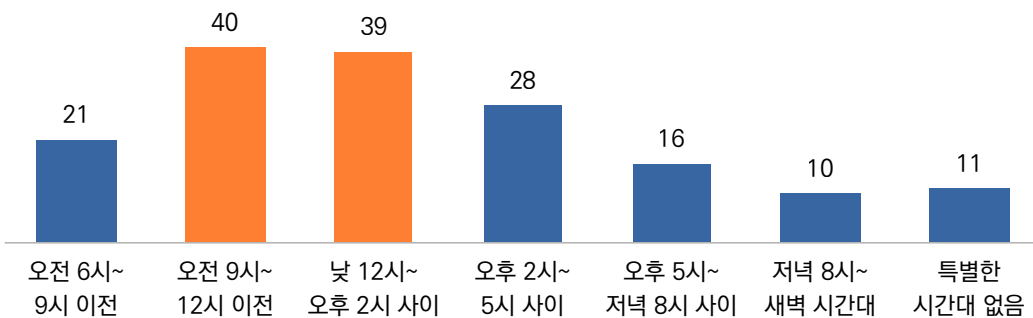
	3잔 이상 비율
전체	19%
13~18세	6%
20대	11%
30대	15%
40대	24%
50대	31%
60대	29%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커피 음용 및 디카페인 커피 관련 U&A 조사, 2025. 07. (최근 3개월 이내 커피 음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4.~07.15.)

한국인이 커피 많이 마시는 시간대, 오전 9시~오후 2시 사이!

- 한국인들이 커피를 가장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시간대는 출근 직후부터 점심 식사 직후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 음용 시간대(중복응답)를 분석한 결과, '오전 9시~12시 이전'(40%)과 '낮 12시~오후 2시 사이'(3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커피 음용 시간대 (2025, 일반 국민, 중복응답, N=1,200, %)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커피 음용 및 디카페인 커피 관련 U&A 조사, 2025. 07. (최근 3개월 이내 커피 음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4.~07.15.)

국민 59%, '커피 타임은 힐링 시간!'

- 커피 음용 관련 인식을 묻은 결과, 일반 국민의 59%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나만의 힐링 시간'이라고 답했으며, 동물인 59%는 '커피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루틴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반면, 커피를 미각적 즐거움보다는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응답도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한 매일 마시는 커피 특성상 '최대한 저렴한 것을 찾아 마신다'는 비율도 42%를 차지해, 고물가 시대 속에서 커피 등 카페인을 섭취하는 행위가 '정신적 위안(힐링)'을 주면서도 실속을 따지는 '필수 습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커피 음용 관련 인식 (2025,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1,200,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커피 음용 및 디카페인 커피 관련 U&A 조사, 2025. 07. (최근 3개월 이내 커피 음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4.~07.15.)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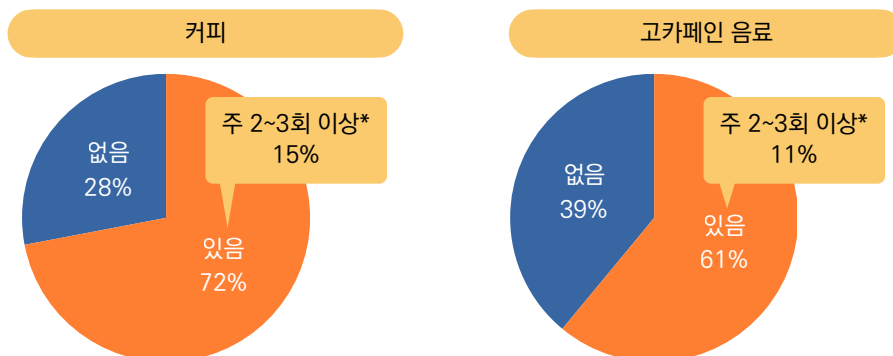
03

[청소년의 카페인 소비 실태]

중고생 60% 이상, 최근 6개월 내 고카페인 음료 섭취 경험 있다!

- 최근 6개월 내 청소년의 커피·고카페인 음료 음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72%가 '커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고카페인 음료(에너지드링크 등)'를 섭취한 비율도 61%에 달해 과반을 훌쩍 넘겼다.
- 단순 경험을 넘어 일상적으로 카페인을 소비하는 청소년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음용자 중 '주 2~3회 이상(월 10회 이상)' 자주 마신다고 답한 고의존 위험군은 커피가 15%, 고카페인 음료가 11%를 차지했다.

[그림]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음용 경험 (2025, 최근 6개월 이내, 중고등학생 전체, N=3,3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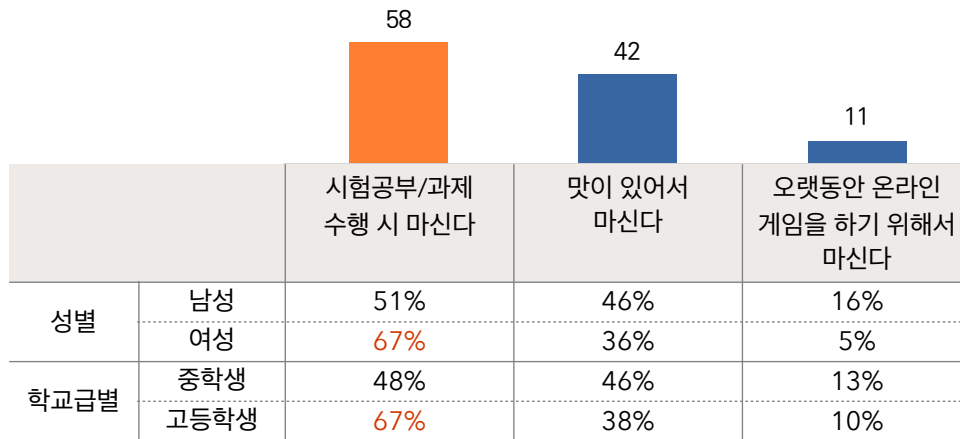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2025.12.(전국의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 3,384명, 웹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 2025.08.18.~09.10.)

*원 질문 '한 달에 10회 이상'을 주 기준으로 환산해 '주 2~3회 이상'으로 표현함

여학생·고등학생일수록 ‘학업 목적’ 고카페인 섭취 뚜렷!

- 최근 6개월 사이 고카페인 음료 음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목적(이유)을 물은 결과, 58%가 ‘시험공부나 과제 수행 시 마신다’고 응답해, ‘맛이 있어서 마신다’(42%)는 응답을 앞질렀다.
- 학업 목적의 섭취 경향은 집단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성별로는 여학생(67%)이 남학생(51%)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7%)이 중학생(48%)보다 월등히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목적 (최근 6개월간 고카페인 음료 음용 경험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2,0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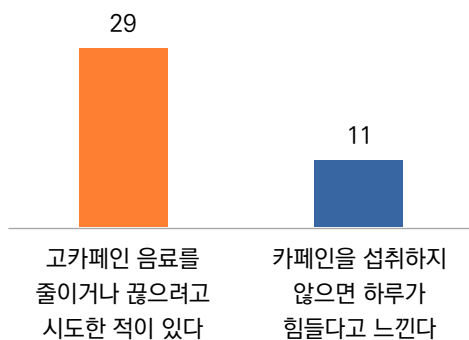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2025.12.(전국의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 3,384명, 웹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 2025.08.18.~09.10.)

*5점 척도

카페인 섭취 경험 있는 청소년 10명 중 1명, ‘카페인 없인 하루도 힘들다’!

- 청소년들의 카페인 음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의존증과 부작용 징후도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꼴인 29%가 ‘고카페인 음료를 즐기거나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해 스스로 과다 섭취를 인지하고 통제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응답 청소년의 11%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낀다’고 응답해, 10명 중 1명꼴로 일상생활에서 카페인 중독 증상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고카페인 음료 의존 관련 인식 (최근 6개월간 고카페인 음료 음용 경험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2,0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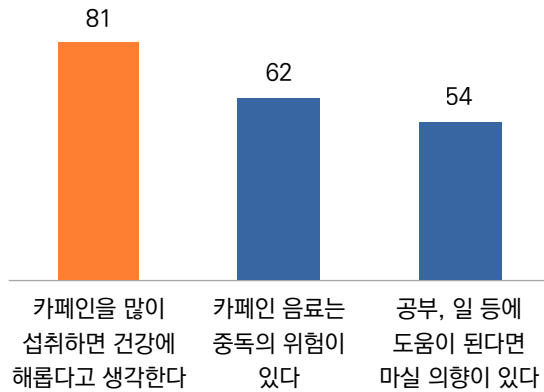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2025.12.(전국의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 3,384명, 웹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 2025.08.18.~09.10.)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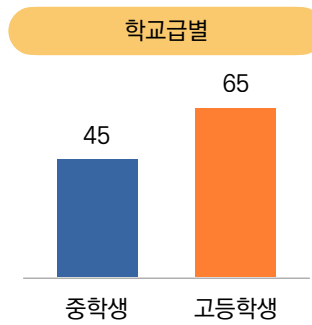
청소년 대부분(81%), 카페인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

- 카페인 음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81%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고', 62%가 '중독의 위험이 있다'에 동의했다.
- 절반이 넘는 54%는 '공부 등에 도움이 된다면 마실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학업 압박이 커지는 고등학생(65%)이 중학생(45%)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카페인 음료에 대한 청소년 인식 (중고등학생 전체,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3,384, %)



[그림] '공부, 일 등에 도움이 된다면 마실 의향이 있다' 긍정률* (중고등학생 전체, 학교급별,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2025.12.(전국의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 3,384명, 웹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 2025.08.18.~09.10.)

*5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한국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416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1위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성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16잔(일 평균 1.14잔)으로 집계되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주요국(21개국) 가운데 독보적 1위였다.

2. 국민 59%, '커피 타임은 힐링 시간!'

커피 음용 관련 인식을 묻은 결과, 커피 음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59%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나만의 힐링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3. 카페인 섭취 경험 있는 청소년 10명 중 1명, '카페인 없인 하루도 힘들다!'

최근 6개월간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청소년의 11%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낀다'고 응답해, 10명 중 1명꼴로 일상생활에서 카페인 중독 증상을 겪고 있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안식의 영성 (두란노서원, 강준민 저)

관련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목회 적용점

커피와 카페인을 이제 단순한 기호식품의 문제를 넘어, 쉬를 잃은 우리 사회가 자신을 버티게 하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 되고 있다. 어른들은 커피 한 잔에서 잠시의 위로와 회복을 찾고, 청소년들은 학업의 밤을 견디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에 의존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로하고 불안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무절제나 영적 나태로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성도와 다음 세대가 왜 이토록 쉬지 못하는지, 왜 스스로를 끊임없이 깨워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표면적인 훈계를 앞세우기보다, 카페인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렵게 만든 과도한 학업 부담, 경쟁 중심의 문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피로를 교회가 먼저 공감해야 한다.

이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참된 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취와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용납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말씀과 예배, 교제와 상담, 다음 세대 돌봄을 통해 성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카페인 의존 현상은 단순히 "줄여야 할 습관"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삶의 신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지친 성도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로와 불안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쉬와 회복을 배우는 목회적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카페인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피로에 익숙해진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 깊은 공감과 실제적인 돌봄으로 참된 안식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결혼생활 만족도



2. 한국인의 장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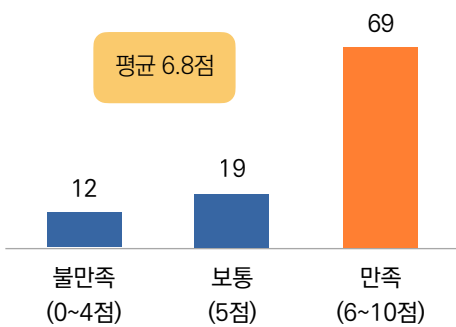


[결혼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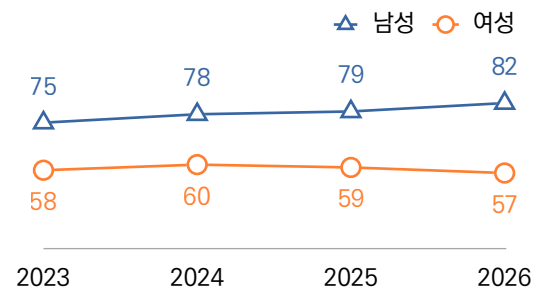
남성의 결혼 만족도는 2023년 이후 최고(82%), 여성은 최저(57%)!

- 우리나라 기혼자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최근 발표한 '2026 결혼인식조사'(한국리서치) 결과를 보면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8점으로 집계됐다. '만족한다' 비율은 69%로 기혼자 10명 중 7명꼴이었다.
- '만족 비율' 추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결혼 만족도는 2023년 7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 82%로 역대 가장 높았으나, 여성의 만족 응답은 2026년 57%로 오히려 3년 전(58%)보다 더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녀 간 결혼 만족도 격차는 더 커져 25%p 차이를 보였다.

[그림] 결혼생활 만족도 (2026, 현재 배우자가 있는 자, N=548, %)



[그림] 결혼생활 만족도 추이 (현재 배우자가 있는 자,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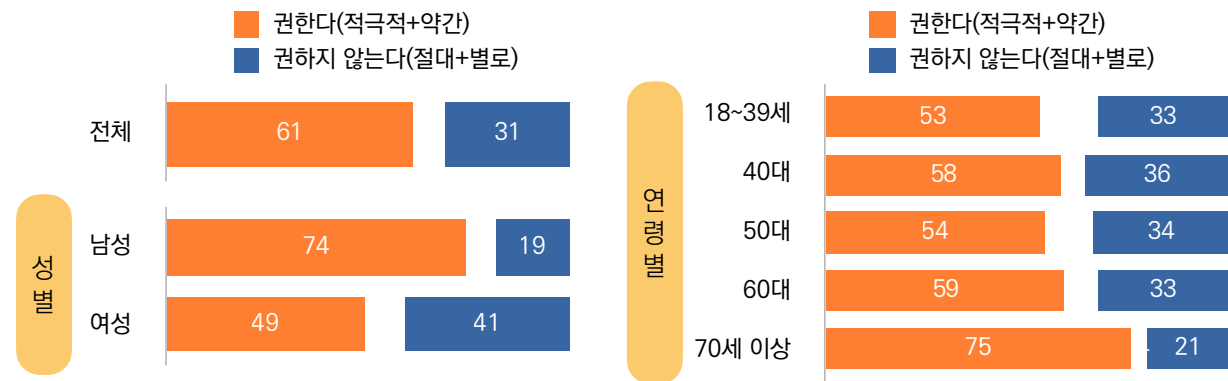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결혼인식조사] 결혼생활 만족도와 부부 역할분담 인식, 2026.06.30.(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4.10.~04.13.)

*10점 만점 기준으로 0~4:불만족, 5:보통, 6~10:만족으로 구분

미혼 지인에 '결혼해라', 남성이 여성보다 권유 성향 뚜렷!

- 이번에는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기혼·사별·이혼자)을 대상으로,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지인에게 결혼을 권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권한다'는 응답이 61%로 '권하지 않는다'(31%)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 '결혼 권유' 비율도 앞선 결혼생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남성(74%)이 여성(49%)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을 권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70세 이상에서는 전체 평균(61%)을 크게 상회하는 75%가 결혼을 권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결혼을 하지 않은 주변 지인에게 결혼을 권하는지 여부*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 기혼/사별/이혼 응답자, N=673)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결혼인식조사] 결혼생활 만족도와 부부 역할분담 인식, 2026.06.30.(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4.10.~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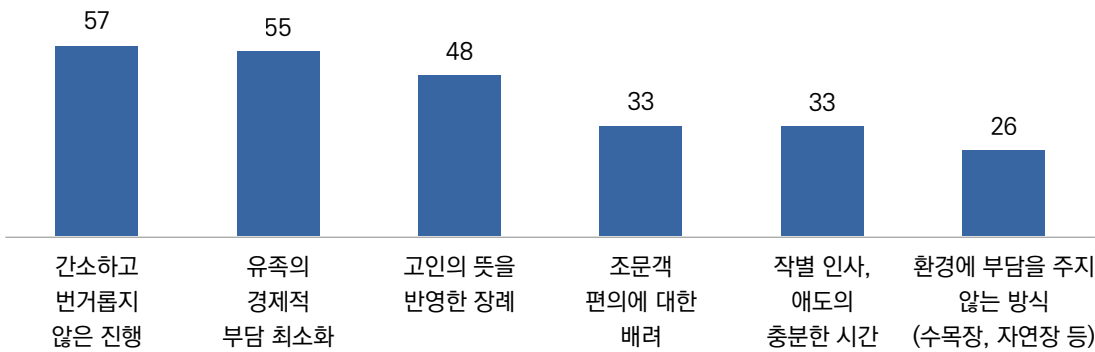
*모르겠음 비율은 제외



좋은 장례 조건, 핵심은 ‘간소함’과 ‘경제적 부담 최소화’!

- 장례는 결혼과 함께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소사로 꼽힌다. 최근 우리 국민의 장례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 좋은 장례의 조건(중복응답)을 묻은 결과, ‘간소하고 번거롭지 않은 진행’(57%)과 ‘유족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55%)가 절반 이상으로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고인의 뜻을 반영한 장례’(48%)순이었다.
-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유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속형 장례 선호 기류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좋은 장례의 조건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6개,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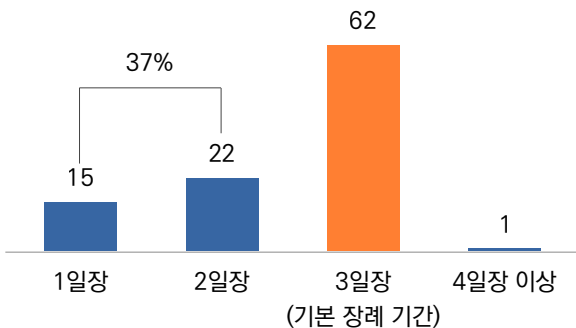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 2026.06.16.(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8.~06.02)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1~2일 단축 장례’ 원한다!

- 적정 장례 기간으로는 현재 기본 장례 기간인 ‘3일장’(62%)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주목할 점은 장례 기간을 이보다 줄이길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일장’이 22%, ‘1일장’이 15%로 나타나, 국민 3명 중 1명 이상(37%)은 1~2일간의 단축 장례를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세부적으로 보면 ‘1~2일장’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32%)보다 여성(43%), 젊은 층보다는 고연령층(60대 4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적정 장례 기간 (일반 국민, N=1,000, %)



[표] ‘1~2일장’ 선택 비율 (일반 국민, N=1,000)

성별	남성	32%
	여성	43%
연령별	20대	23%
	30대	36%
	40대	41%
	50대	41%
	60대	47%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 2026.06.16.(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8.~06.02)

국민 절반 이상(57%), 적정 장례 비용은 ‘1,000만 원 미만’!

- 예상 장례 비용과 적정 장례 비용을 비교한 결과, 장례 예상 비용은 ‘1,000~1,500만 원 미만’(34%)과 ‘1,500~2,000만 원’(27%) 구간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적정 장례 비용은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미만’(57%)을 꼽아 큰 대조를 보였다.

[그림] 예상 vs 적정 장례 비용 (일반 국민,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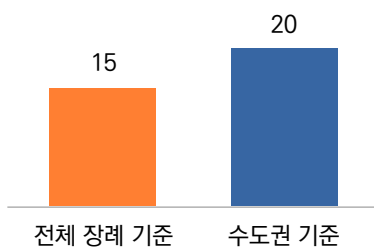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 2026.06.16.(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8.~06.02)

전체 장례의 15%는 ‘무빈소 장례’!

- 우리나라 전체 장례 중 빈소를 차지하지 않는 ‘무빈소 장례’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장례업계에 따르면, 무빈소 장례 비율이 전체 장례 기준으로는 약 15%, 수도권은 약 20% 정도로 추정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5곳 중 1곳 정도는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른 셈이다.

[그림] 무빈소 장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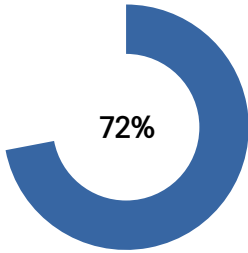


※출처 : KBS 뉴스, “3일장에 2천만 원?”...‘무빈소 장례’ 늘었다 [잇슈 키워드], 2026.06.0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75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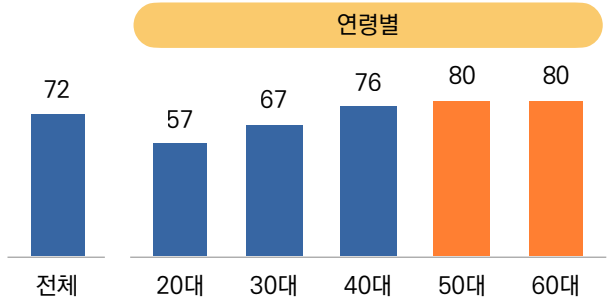
국민 72%, ‘본인의 무빈소 장례 의향 있다’!

- 별도의 조문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7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향후 본인 장례를 무빈소 장례로 치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2%)이 ‘의향이 있다’고 밝혀, 장례 간소화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50대 80%, 60대 80%) 수용적인 태도가 뚜렷했다.

[그림] 무빈소 장례 인지도 (일반 국민, ‘정확히 알고 있다+들어본 적 있다’ 비율, N=1,000)



[그림] 본인 무빈소 장례 ‘의향 있음’ 비율* (일반 국민, 연령별,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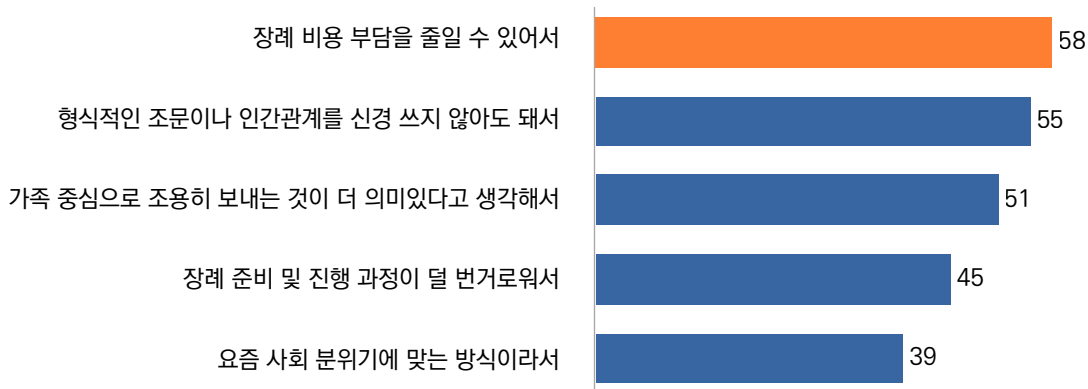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 2026.06.16.(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8.-06.02)
*4점 척도

무빈소 장례 선호 이유, ‘비용 절감’과 ‘본질적 추모에 집중’!

- 무빈소 장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긍정 평가자, 중복응답)로는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58%)가 가장 높아 실속형 장례에 대한 니즈를 보여줬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조문이나 인간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55%),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보내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서’(5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무빈소 장례 긍정 평가 이유 (무빈소 장례 긍정 평가자, 중복응답, 상위 5개, N=9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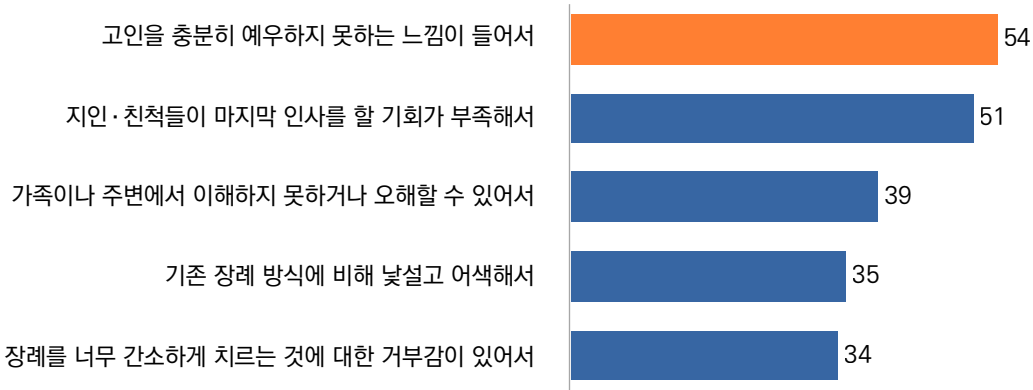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 2026.06.16.(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8.-06.02)

무빈소 장례에 대한 우려, ‘불충분한 예우·조문 기회 부족!’

- 무빈소 장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부정적 평가자, 중복응답)로는 ‘고인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54%), ‘지인·친척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가 부족해서’(51%)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어서’(39%), ‘기존 장례 방식에 비해 낯설고 어색해서’(35%) 순이었다.
-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라는 현실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추모의 격식과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심리적 부채감’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의 시선’이 무빈소 장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무빈소 장례 부정 평가 이유 (무빈소 장례 부정 평가자, 중복응답, 상위 5개, N=137,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 2026.06.16.(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5.28.~06.02)
*4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67호 \(2026년 7월 1주\)](#)

- 신임 국무총리 적합 여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전세 제도 인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3호 \(2026년 7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모병제 도입 관련 인식, 군 의무복무기간 관련 인식

[차기 보수 리더 1위 한동훈, 호감도는 오세훈 \[6·3 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시사IN_2026.6.30.

[20대 남성의 절반이 '고의적 부정선거'라고 답했다 \[6·3 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시사IN_2026.6.30.

사회 일반

[남성 육아휴직 81%가 지지하지만...동료에 권장은 46% 그쳐](#)

연합뉴스_2026.6.24.

[\[그래픽\] 성별 가사노동생산 현황](#)

연합뉴스_2026.6.23.

[아이 돌보고 살림하는 남성 '전업주부' 27만명...역대 최다](#)

연합뉴스_2026.6.29.

[아이 낳는 결정적 조건, 돈도 집도 돌봄도 아니었다](#)

동아일보_2026.6.24.

[교사 10명 중 9명 "학교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 심각"](#)

노컷뉴스_2026.7.1.

[자산·소득 하위층 20~30대 비중 5년새 7.9%→15.2%](#)

데이터숨_2026.6.15.

[국민 10명 중 4명 "냉방비 부담으로 식비·의료비 등 포기"](#)

조선일보_2026.6.24.

["4인가족 이사 가면 월 60만원 따박따박"...한달새 인구 3065명 늘었다\[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아시아경제_2026.7.5.

["전·월세는 없고..." 떠밀린 세입자들 고금리에도 빚내 집 산다](#)

국민일보_2026.6.24.

[실업자 늘었는데 실업급여는 줄어... 청년 취업난의 '역설'](#)

국민일보_2026.6.25.

[물건·돈 던지기까지...알바 10명 중 3명, 고객 갑질 당했다](#)

동아일보_2026.6.28.

[불법촬영·딤페이크 등 가해 10건 중 3건은 "헤어진 연인이"\(종합\)](#)

연합뉴스_2026.6.23.

[진보층 늘고 보수층 줄었다...한국 사회 최대 갈등은 '이념'](#)

연합뉴스_2026.7.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피해자가 방치된 사회], (조선일보)

[가정폭력 피해자 90% 방치... 법보다 남편 주먹이 가깝다](#) _2026.7.2.

[미성년자 성폭행 신고했더니... "꽃뱀한테 당한 것" 되레 온라인 도배](#) _2026.7.2.

[악몽같은 '그놈 목소리'... 피해자에 녹취록 만들라는 경찰](#) _2026.7.5.

[\[기획\] 우리사회 AI 문해력의 현주소, '의심은 하지만 검증은 부족하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6.23.

[\[2026 결혼인식조사\] 결혼생활 만족도와 부부 역할분담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6.30.

["150만원 우습게 깨져요"...여름휴가 앞두고 40대女 결국](#)

한구경제_2026.7.5.

아동 · 청소년 · 청년

["나 촉법인데?" 비웃던 13세 일진들...이제 소년원 아닌 교도소 보내나](#)

매일경제_2026.6.28.

[코로나19 직격탄에 중3 수학 학력 ↓ ...최저등급 비율 최고치](#)

연합뉴스_2026.6.23.

["힘들 때 친구보다 애 찾아요"...청소년 3명 중 1명 "우울한 날 시와 대화"](#)

매일경제_2026.6.30.

[학부모 98% "미성년자 스마트폰 제한해야...유해물 노출 우려"](#)

연합뉴스_2026.6.24.

[신규 박사 3명 중 1명 '백수'...청년은 절반 이상 무직, 역대 최악](#)

중앙일보_2026.6.29.

노인

[소득·재산 늘어 기초연금 '탈락' 어르신 3년 새 60% ↑](#)

연합뉴스_2026.6.28.

[20~40대 줄었는데 60대만 급증...다중채무 '고령화' 뚜렷](#)

연합뉴스_2026.6.30.

경제 · 기업

[우리팀 막내 또 사표냈다...몰락한 '신의 직장'](#)

중앙일보_2026.6.2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월 수출 1000억弗 달성 한국, 일본보다 빨랐다](#)

매일경제_2026.7.1.

[자영업자 과반 "경영상황 나빠졌다"…최저임금 동결 의견도](#)

연합뉴스_2026.6.23.

[재고용 기업 10곳 중 8곳 "고령직원 능력·성과 보고 선별채용"](#)

연합뉴스_2026.6.24.

["시는 거들 뿐"…직장인 절반이 꿈은 미래 리더의 '이 능력' 뒤통리](#)

매일경제_2026.6.26.

[중소기업 57%,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냈다](#)

데이터숨_2026.6.25.

[끝 모를 불황에…작년 폐업 중 절반은 '3년 이상' 된 가게](#)

경향신문_2026.6.30.

국제 · 환경

[36개국 여론조사서 응답자 76% "트럼프 신뢰 못 해"](#)

연합뉴스_2026.6.24.

["미국인 4명중 한명만 '이란전쟁 비용 치를 가치있었다' 생각"](#)

연합뉴스_2026.6.24.

["속 얘기는 엄마한테만"…남성 평균키 170cm의 나라, "집도 인간관계도 작은 게 좋아"](#)

아시아경제_2026.7.5.

건강

[피로한 직장인, 매시간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 수직 상승](#)

헬스조선_2026.6.24.

기독교 · 종교

[돈·건강 때문에… 기독교인 10명 중 5명 우울 경험](#)

국민일보_2026.6.24.

[미 대형교회회의 67%, 코로나 이전보다 출석 증가했다](#)

크리스찬타임스_2026.7.3.

[인터뷰 |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크리스찬타임스_2026.7.3.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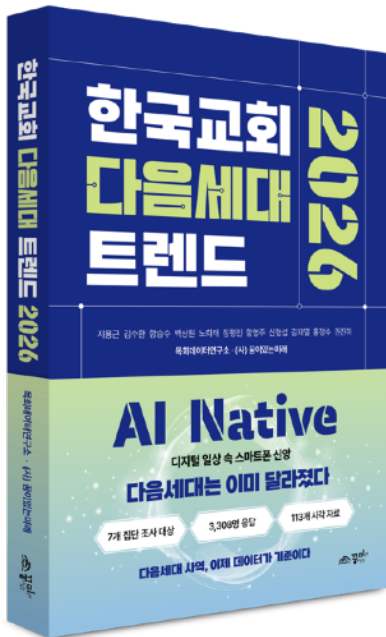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 (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온라인 양성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7월 23일(화) 19:00~21:30
- 2)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 3) 강사 : 우명훈소장(세바시연사 코치)
-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5) 참가비 : 3만원 (구독 교회는 2만원)
-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